

“대중가요 버금가는 찬불가 만들고파”

불교·환경 노래 불러온 가수 라마...첫 찬불가 앨범 발표

난 살아갈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난 바라볼게 바 마음속의 가을 흔들리지 않게 난 기억할게 나를 바라보던 너의 미소/ 난 노래할게 바람의 마음 전하는 풍경처럼

에코어커스틱 밴드 요술당나귀 리더 라마(32)의 노래 '풍경'의 한 소절이다. 긴 머리에 나뭇잎으로 장식한 맑은 눈의 청년은 무대 위에서 서정적이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환경을 노래하고 불법을 말한다. 법구경-술천품의 '그릇되고 거지된 마음으로 백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낫다'는 귀절에 감명 받아 만든 노래다. 애절하고도 서정적인 노래에는 부처님 말씀을 좀 더 쉽게 대중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

“가시나무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모두 CCM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기독교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찬불가도 대중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되 그것이 종교를 떠나 모두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래 말이죠”

서울 구로동에서 만난 라마는 올 7월 첫 찬불가 싱글 앨범 발매를 앞두고 노래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다. '연꽃의 왈츠' '말' (정구업전연) '풍경' 등의 노래가 담긴

앨범은 불교 철학을 바탕으로 했다. 라마가 찬불가에 관심 갖기 시작한 것은 2년전 낙산사 공연을 가시다.

“해수관음상 불전함에 새겨진 비옥조의 전설을 알게 됐어요. 암수의 눈과 날개가 각각 하나씩이어서 짝을 짓지 않으면 날지 못한다는 전설을 듣고 만든 노래가 '비옥조'예요. 그때부터 스토리텔링을 위해 <법

부처님 말씀 가사에 담은
연꽃의 왈츠 등 신곡 발매
찬불동요 보급에도 힘쓸 터

구경) 등의 불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교에 관심을 가졌죠”

이후 그는 BTN 음악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1년 반만에 찬불가 15곡을 만들어낸다. “작업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정진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혼탁해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죠. 15곡 모두가 이번 앨범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3곡 정도씩 나눠 발표할 거예요. 아직 제목을 못 붙인 노래들도 있어요. 나머지 곡들은 더 다듬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겁니다”



가수 라마가 첫 찬불가 앨범을 발표한다. 7월 싱글앨범 발매를 앞두고 자신의 구로동 연습실에서 연습중인 라마.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하지 3년 밖에 안됐지만 그의 활동은 활발하다. 2010년 통영국제음악제에서 그랑프리상을 수상한 것은 물론, 지구를 살리는 예술-그린아티스트(green artist) 활동을 해온 라마는 강정마을 등 환경문제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또한 울산 MBC에서 공적 여행 프로그램 '달팽이' MC, BTN '소찬휘의 라이브콘서트 풍경' 오프닝 공연을 연주하기도 했다.

그는 요즘 108배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기도를 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비우고 있는 라마는 앞으로 법당에서

녹음 작업을 해보고 싶단다. “대부분의 사람이 참이 목조 건물이잖아요. 그 속에서 찬불가를 부르면 울림과 느낌 자체가 음악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 거라 생각 돼요. 물론 저의 밴드 요술당나귀가 지향하는 환경과 식량문제 등 사회적 이슈를 담은 노래도 꾸준히 부를 겁니다”

특히 그는 환경을 주제로 한 찬불동요에 관심이 많다. “아이들이 자연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면 하는 마음을 찬불동요에 담아 보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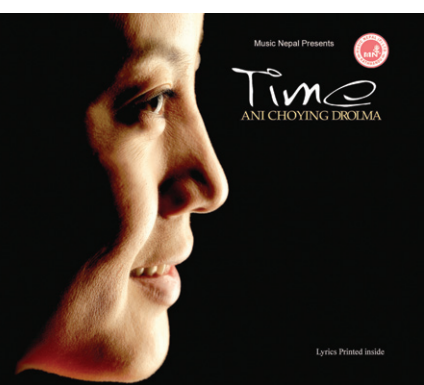
‘시간의 강’ 건너는 천상의 목소리

아니초잉돌마 자선앨범 발매

영혼을 울리는 천상의 목소리 네팔 최고 국민가수 아니 초잉 돌마의 베스트 셀러 자선앨범 '타임(시간의 강)'이 발매됐다. 이번 앨범에는 네팔의 대중가요인 아두닉 팝(Nepali Aadhunik pop) 스타일의 음악 등 총 11곡이 수록되어 있다.

시적인 노랫말들이 평온하면서도 잔잔한 어쿠스틱 악기와 절묘하게 어우러져 환상적 조화를 이룬다. 여기에 영혼을 울리는 듯한 율조리는 아니 초잉의 목소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 속 깊이 사무쳐 흐른다. 그녀의 음악에는 영혼을 정화시키는 듯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감동과 종교를 초월한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깃들여 있다.

이번 앨범은 아니 초잉이 설립한 '네팔 비구니 복지재단(NWF)' 운영기금 마련을 위해 발표됐으며 네팔 최고의 시인인



‘드르가 라’와 ‘노오 바즈라차르야’가 작사 작곡가로 참여했다.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은 산스크리트어로 된 가네시(Ganesh) 혹은 가네샤(Ganesh) 만트라다. 가네시신을 찬양하는 바잔(Bhajan)으로 이른 아침에 주로 암송한다. 이 만트라를 암송하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되고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고 한다.

정혜숙 기자

심우도로 종교적 이상 표현

갤러리리듬 특별기획 김성현展

희망과 자유 가족 등을 주제로 작업을 해 온 김성현 작가의 개인전이 6월 22일까지 갤러리리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점토로 구운 설치품과 평면회화작품 등 다양한 장르의 신작 30여점이 선보인다.

페인팅 작품과 도자기 설치품들은 명상과 종교적 이상향을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특히 불교의 선종



(禪宗)에서 인간의 본성을 찾는 과정을 '심우도'로 보여줘 관객들의 눈길을 끈다. 또한 점토 작업은 생각과 변형, 단숨미를 그만의 새로운 조형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점토는 작가의 표현욕구인 회화적 욕구와 조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010)2472-1283

행원문화상 6월 30일 마감

행원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21회 행원문화상 공모'가 6월30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여경상은 불교와 불교학 발전에 기여한 학술 연구 저서를 출간한 학자 >예술상은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 분야에

업적을 이룩했거나 혹은 방송 연례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에 이바지 한 예술인이다.

접수는 우편 혹은 방문 접수 가능하다. 접수처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종합상가 10동 401호 재단사무국(우 137-877)이다. 심사를 거쳐 8월 중순경 수상자를 발표하며 시상식은 9월 24일이다. (02)586-6521

승단을 지켜내지 못한 죄를 참회합니다.

마이크 목걸이

A 타입 분리형 B 타입 고정형

A타입 ₩ 65,000
B타입 ₩ 55,000

A+B (1set) ₩100,000
택배비 무료

주문전화
구미 미르사 (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 (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토암 (진각) 010-6657-5522

☆ 마이크 굵기 직경 38mm 이상은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입금계좌(예금주: 미르사) 동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들에게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8442-4444 (상담)
■ 묘목 재배 농장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다라니수지자는 광명의 깃발 신통의 창고!

다라니 수행

신묘장구대다라니경 강설
일산법상 저음
신국판 | 컬러 | 344쪽
2012년 1월 25일 발행
15,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불자들이 가장 애송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그 첫 수행지침서이자 '긍정의 힘' 사용설명서

수행중에 '아공(俄空)'을 체험한 덕양선원(cafe.daum.net/zeol) 선원장 일산(一山) 법상스님은 '신묘장구대다라니 수행으로 창조력, 삼매력, 자비심, 용맹심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본성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일깨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비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호기과강판, 일반기과강판, 스테르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대칼라지붕공사



동화사 성보박물관장